미국 · 일본 소녀만화의 표현발달 및 성립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Visual Techniques in U.S. and Japanese Girl's Comics

권경민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Kyung-Min Kwon(kwonkm@ns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맥락 문화의 대표국인 일본과 저맥락 문화의 대표국인 미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소녀 대상 만화의 표현 발달과 성립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동서양 문화권에 따른 비교연구는 소녀만화 표현 매커니즘에 대한 정서적 차이를 구명할 수 있으며, 표현영역 확장에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소녀만화의 표현 매커니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각 문화권에서의 소녀 만화를 보다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고맥락 문화 | 저맥락 문화 | 소녀만화 | 칸 |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visual techniques used in girls' comics in the paradigmatic low and high-context cultures of American and Japan. As previous analyses have shown,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expressive mechanisms employed in girls' comics i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and it is an investigation of this realm of expression that is the basis of this study.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frame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expressive mechanisms in girls' comics. A close examination of this underlying structural component reveals that both cultures demonstrate autonomous growth,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future studies.

■ keyword : | Low-context | High-context | Culture | Girls' Comics | Frame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1960년대 최초로 개화기를 맞은 일본의 쇼조망가(少女マンガ)는 전례가 없는 장식성을 드러내며, 소년만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창조한다. 크고 반짝이는 눈동자, 8-9등신으로 그려지는 신체적 특징, 배경에 그

려진 기호로서의 꽃들, 순차적 칸 배열에서 벗어난 자유스런 칸 구성 등 다른 만화장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각적 표현을 보이는 쇼조망가는 일본의 대표적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한국의 소녀 대상 만화의 장르성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단, 명칭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 소녀대상의 만화를 가리켜 ‘쇼조망가

*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신임교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00603-003

접수일자 : 2010년 06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6월 17일

교신저자 : 권경민, e-mail : ai4min@paran.com

(소녀만화)'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순정만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만화장르의 성립이 만화잡지 발행과 깊이 연관되어 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소년만화잡지, 소녀만화잡지, 영(young)잡지 등으로 장르구분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가리켜 '쇼조망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연령 또는 성별의 기준이 아닌 스토리를 중심으로 슬프고 순정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만화장르를 순정만화라고 부르며, 주로 소녀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체와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이미 출판만화의 상업화를 이루었고 1930년대부터 단행본 만화 전성시대를 구가하였다. 미국의 출판사들은 만화산업의 다각적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소녀들을 위한 Girl's Comics를 발간하였으나 몇몇 성공적인 전략을 제외하고는 미국만화의 역사에서 소녀들을 위한 만화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만화로 통칭되는 미국의 Girl's Comics와 일본 쇼조망가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며,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일본의 쇼조망가와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미국의 Girl's Comics를 칸나누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장르 성장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화에서의 칸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누거나 공간을 이동하거나 시선유도의 역할을 한다. 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태와 크기가 같고 인접 칸과 엄격히 구별되며 순차적인 시간의 질서를 담당하는 '단일형' 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칸의 형태와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회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칸의 배치에 의미를 두는 '복합형' 칸이다. 만화의 화면은 복수의 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칸의 배열과 연출은 독자의 심리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서양 문화권에 따른 비교연구는 소녀만화 표현 매커니즘에 대한 정서적 차이를 구명할 수 있으며, 표현 영역 확장에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소녀만화의 표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각 문화권에서의 소녀만화를 보다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미국과 일본의 소녀만화 역사 및 칸의 흐름

1. 미국 Girl's Comics의 역사

미국에서 소녀를 위한 만화는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1호는 『아치(Archie)』(아치 코믹스, 1942)인데, 주근깨가 있는 젊은이 아치와 그의 친구인 저그헤드, 사랑의 경쟁자 레기 그리고 10대 소녀 베티와 베로니카가 사랑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는 공식은 뒤이어 발행된 수많은 만화책의 기본 틀이 되었다. 론 굴라트의 『Over 50 Years of American Comic Books』(1986)에 의하면 당시 출판업자와 영화제작자 그리고 기타 사업가들은 인구전체에서 큰 부분을 구성하는 청소년층에 눈을 돌렸고, 그들의 유머와 행동양식을 오락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들에게도 쓸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2].

1950년대에는 빠른 속도로 출판을 다각화하여 비슷한 연령층의 소녀들을 겨냥한 만화들이 발행되었다. 등장인물은 항상 소녀용 짧은 양말(바비삭스)을 신은 예쁜 여자들이었고, 데이트와 관련된 사고와 오해가 단골 소재였다. 이 만화들은 욕망과 진실한 사랑이라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춘기를 이상화시켜 표현했지만 수준 높은 도덕적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대부분의 남성 코믹스작가들이 징집되어 그 대신 여성작가와 화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당시 여성만화가들은 남성 중심의 코믹스 시장에서 남성의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슈퍼 히로인과 여성탐정, 정글의 여왕, 스파이 등과 같은 강한 액션 히로인을 그렸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 복귀를 하자 남성만화가들을 대신해서 일했던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강한 슈퍼 히로인의 이야기가 아닌 여성의 행복은 결혼과 육아라는 메시지가 담긴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후 발매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로맨스 코믹스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린 로맨스 코믹스는 조 사이먼이 쓰고 잭커비가 그린 『영 로맨스』였는데, 잭 커비는 이야기에 강렬함을 주입하기위해 사랑, 간통, 복수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했으며 표지에는 '성인독자를 위한 만화'라는 문구가 실렸다[2]. 1960년대가 되자 Girl's

Comics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짧은 양말과 순결한 사랑이 한물간 이유도 있었지만, 10대를 지향하는 TV 프로와 영화가 실질적인 요인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 언더그라운드 만화가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으면서 여성작가들도 『Girl Fight』 『All Girl Thrill』 『Illuminations』 등의 작품집을 자체 제작하여 그녀들의 작품을 연재했는데, 내용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며 장식성이 강한 사이키델릭풍의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초 『It Ain't Me Bebe』라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코믹스가 발행되어 여성 창작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72년에 여성운동에 유머감각을 실어 준다는 의도로 출판된 『WIMMEN'S COMIX』로 1992년까지 계속되어 여성작가들만의 코믹스 작품집으로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다[2].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소녀를 독자로 한 코믹스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만화책은 코믹스 전문점에서만 취급되었는데 이러한 서점은 젊은 남성 독자 위주였고 서점의 경영자도 남성이었기 때문에 소녀 대상의 만화는 취급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판매망이 정비되지 않게 되자 Girl's Comics 부활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출판사와 편집자들은 '소녀들은 코믹스를 읽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소녀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망가 붐으로 미국 소녀만화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망가 스타일의 영향을 보이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 만화작가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의 장르에 활동을 한정하지 않고 펑크스타일의 실험적 작품에서 일본망가의 영향을 보이는 작품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다.

1.1 미국 Girl's Comics의 칸나누기 흐름

1) 1940년대~1950년대

194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10대 만화 시장이 열렸는데, 출판사들은 소년만화의 조연들을 새로운 만화책으로 등장시켜 1945년에는 『수지』, 1949년에는 『케이티

키니』, 1950년에는 가장 유명한 『베티와 베로니카』를 출판했다[2]. 『베티와 베로니카』는 아치라는 소년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금발과 갈색머리의 두 소녀 이야기인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칸들이 균등하게 나뉜 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소재목이 들어가는 경우 맨 위의 칸을 통합하여 구축 샷을 그리거나, 중요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좌우 칸을 합쳐서 가로로 긴 칸으로 사용하는 등 기초적인 단계의 칸 나누기 연출을 볼 수 있다. 현재에도 『베티와 베로니카』는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제작 발행되고 있으나 칸 나누기의 형태는 초기와 같은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Betty and Veronica』 시리즈 초창기 발행물, 아치 코믹스, 195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왕성하게 출판되었던 슈퍼 히로인을 소재로 한 만화의 경우에서도 칸나누기의 연출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스타일을 보였다. [그림 2]를 보면, 대부분 소재목이 들어가는 페이지의 칸 통합으로 큰 칸이 제목과 함께 그려지며 옆 페이지의 경우 단에 따라 조금씩 크기의 변화를 보이지만 3단을 각 2칸씩 나누어서 페이지당 6칸의 칸나누기를 하여 대사의 분량과 강조의 정도, 담아야 할 정보의 양에 있어서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Action Comics』 'Super Girl', DC코믹스 1963

2) 1960년대~1970년대

미국에서 Girl's Comics가 크게 유행하던 1940년대와 1960년대 사이 사회적으로 어린 소녀-사실은 여성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었고 그 결과 소년만화보다 더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당시 여성을 위한 만화는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비기독교적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만화규약이 시행되면서 큰 탄압을 겪어야 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칸나누기를 보면 예전에 비해 한 페이지에 실리는 칸의 수는 증가했지만, 칸의 간격과 칸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세로로 긴 사각형 칸이 사용되거나 좌우의 칸이 합쳐져서 가로로 긴 칸의 형태, 같은 단에서 칸의 크기 차이를 두는 등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인 사건전개로 이루어져 있어 상황 진행으로 칸의 연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주류의 만화들과 전혀 다른 목적과 성향을 갖고 언더그라운드 여성만화가 시작되었는데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기존의 틀과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칸나누기에 있어서도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창성을 보이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여성 코믹스를 개척한 창작자 중 한 명인 트리나 로빈슨은 『It Ain't Me Bebe』라는 독창적인 여성만화집을 만들었는데, 표지

에 쓰여진 '여성해방!'이라는 선언처럼 매우 급진적인 성향의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림 스타일은 매우 전통적이었다[2].

그림 3. 『YOUNG ROMANCE』 'Full Hands Empty Heart' DC코믹스, 1973

그림 4. 『WIMMEN'S COMIX』 'TEMPORARY SANITY', 1976

[그림 4]는 당시 대표적 여성만화집인 『WIMMEN'S COMIX』에 실린 만화 <TEMPORARY SANITY>인데, 지금까지의 사각형 위주의 칸의 형태를 벗어나 나선형과 원형을 사용하여 매우 장식적인 칸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여자 주인공의 회상에 해당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가 맨 나중 칸에서 과거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현재라는 두 개의 시간 축을 보여주

고 있지만 칸의 흐름은 예전과 같이 순차적인 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3)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출판사들은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채색을 하고 책의 읽기 방향을 서양식으로 고치는 등의 작업을 해서 망가를 미국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일본 망가와 아니메를 보면서 성장한 미국의 만화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상징적 만화기호, 글 없는 칸, 주관적인 행동선 등 감수성이 표현된 새로운 망가 스타일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만화가들 역시 대안만화, 그래픽노블, 웹 만화 등 자신의 장르 속에서 기존의 주류만화와는 다른 새로운 실험적 스타일을 선보이는 만화를 다수 제작하고 있다.

그림 5. 『Barbie』 Mary Wilshire & Trina Robbins, 1994

[그림 5]는 트리나 로빈슨과 메리 월세라의 독창적인 스타일의 만화인데, 기존의 미국 Girl's Comic에서 보여주었던 칸나누기 방식에서 벗어나 회화적 상상력으로 독특한 화면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1990년대 이후

앞에서 언급했듯이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여성들은 코믹스를 읽지 않는다'는 편견이 자리를 잡고 있었

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망가 붐으로 이러한 편견은 바뀌어 '소녀들은 흥미를 갖는 코믹스가 있다면 만화를 읽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칸 나누기를 비롯한 표현에도 그 영향은 보였는데 남성중심의 미국만화시장에서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읽혀왔던 아치 코믹스의 사브리나(Sabrina)시리즈에는 이러한 망가스타일을 Girl's Comic에 접목시키기 시작했다[10]. [그림 6]을 보면, 눈이 크게 확대되었고 꽃이나 하트가 배경에 흩날리고 있으며 칸나누기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소녀만화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림 6. 『Sabrina』 No.58, 2004

망가의 영향에 따른 소녀만화의 붐과 더불어 미국 Girl's Comics는 새로운 분화를 통한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녀만화에서 장르의 분화로 이루어진 일본의 야오이나 레디코믹처럼 미국에서도 성인 여성독자들을 위한 게이와 레즈비언 작품집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레즈비언 만화 작가 엘리슨 베텔은 주류 만화로 진출하여 그녀의 그래픽 노블 『Fun Home』은 2006년 TIME지 선정 베스트북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2. 일본 쇼조망가(少女マンガ)의 역사

일본의 쇼조망가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소녀클럽』에 연재한 데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가 그

효시로 언급된다. 테츠카 오사무는 서술적인 구조와 영화적 기법을 강조하여 소녀독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무렵부터 쇼조망가에 등장한 캐릭터들은 6등신 이상의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시작했고 긴 머리카락과 거대한 눈동자, 긴 속눈썹, 배경에 그려진 기호적 꽃들은 소년 만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독자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960년대 『주간 소녀프렌드』와 『주간 마가렛』이 창간되면서 본격적인 소녀만화 전문지 시대가 열렸고 19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사랑이야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의 사랑이야기는 단계를 밟아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는 생각과 연애는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식이 만화의 스토리텔링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는 쇼조망가 최초의 개화기로 등장인물과 배경을 둘러싼 전례 없는 장식성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르적 특징이 성립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혁신적인 작품을 그리는 여성 작가들이 대두되었다. 24년조(24年組)¹⁾라고 불리는 이 여성작가들은 테마의 참신함과 표현의 창의성으로 쇼조망가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녀들은 기호적인 육체를 통해 살아있는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으며 쇼조망가 특유의 기호개발을 가속화했다. 이 당시 그려진 이케다 리요코의 『베르사이유의 장미』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순정만화 장르성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1986년 여성작가들에 의해 무료로 배포된 ‘아홉번째 신화’는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 잡지 『르네상스』 창간에 공헌했다[1].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쇼조망가는 보다 성숙한 여성독자를 위한 장르인 레디코믹(Lady's Comics)로 분화되었다. 레디코믹은 남성 에로만화에 버금가는 표현수위를 보였고 이제껏 일본만화의 전통적 독자층에서 항상 소외되었던 성인여성 그룹을 만화에 편입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BL(Boy's Love)로 알려진 야오이(やおい) 만화 역시 24년조 여성만화가

들의 활동으로 일본 쇼조망가 장르의 하나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여성독자를 위한 레디코믹과 야오이 만화는 남성독자를 위한 에로만화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차별화를 보이는데, 1990년에 발간되어 전성기일 때 매달 40만부를 발행했던 일본의 대표적 레디코믹 잡지 『코믹 아무로(Comic Amour)』의 편집장 미즈노 마사후미는 여성을 위한 에로만화 잡지에는 남성 에로만화 잡지와 달리 직설적이지 않고, 그대신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하는 등 심리적인 교감과 그것에 대한 묘사가 필요하다고 그 차이를 지적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는 소녀들을 위한 만화잡지가 45종, 성인여성을 위한 것은 52종이었다. 발행은 월간, 또는 계간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의 모든 작품이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4]. 1994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일본의 경제적 쇠퇴는 많은 만화잡지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지만, 안정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레디코믹과 야오이만화 잡지 가운데 몇몇은 아직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덧붙여,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야마다 에이미, 요시모토 바나나와 같은 여성문학자들은 쇼조망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마치 쇼조망가를 연상시키는 듯 상황위주의 감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로 인해 그녀들의 작품은 ‘쇼조망가식 소설’, ‘만화를 소설로 썼다’는 등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장르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문학형식으로 받아들여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1 일본 쇼조망가의 칸나누기 흐름

1) 1940년대~1950년대

1940년대까지 대부분의 쇼조망가는 연재되는 페이지의 양이 전체 페이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분량의 한계로 4~8칸의 짧은 만화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49년 『소녀』 잡지가 창간되면서 연재되는 만화 페이지 수도 늘어 15칸 만화가 등장하였다. 1953년 『소녀클럽』에서는 연재분량이 8페이지 정도의 장편 연재 만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에는 장편 연재 만화들이 정착하며 잡지의 사이즈 역시 A5에서 B5로 확대되어 보다 뚜렷한 시각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1958년 이후에는 많은 경우 32페이지 분량의 만화가 연

1) 쇼와24년(昭和24年=서기1949년)전후에 출생한 작가들의 모임을 가리키며, 대표작가로는 하기오 모토(1949), 오오야마 유미코(1947), 타케미야 케이코(1950), 이케다 리요코(1947), 키하라 토시에(1948) 등이 있다. 일본은 1949년 전후로 인구가 크게 늘어 연령별 구성이 두드러지게 팽창했는데 이 세대를 단괴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되며 남성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던 소녀만화계에 여성작가들이 등장해 독특한 그림체와 스토리로 인기를 끌며 소녀만화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림 7. 『あらしをこえて』 高橋真琴, 1958

195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만화에서 칸 나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크기의 사각형 칸으로 이루어졌고, 칸을 일탈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쇼조망가의 균등한 칸 나누기는 1950년대 말 다카하시 마코토(高橋真琴)에 의해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다카하시 마코토는 1958년 『소녀』 1월호에 '3단 통합 스타일화'라고 불리는 칸 나누기를 그렸는데 이 3단 통합 스타일화는 그 후 모든 소녀 잡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9].

2) 1960년대~1970년대

1960년대의 일본은 출판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 붐이 일었던 시기로 1960년대 여성들은 대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확립해갔는데, 이러한 페미니즘 수기 스타일이 쇼조망가 장르의 스토리텔링 구연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70년대 쇼조망가는 그때까지 수평, 수직축을 기본

으로 전개하고 있던 칸 배분 법칙과는 전혀 이질적인 원리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칸을 극히 가늘고 길게 변형하거나 몇 겹씩 겹치는 것은 물론 칸이라는 약속 그 자체를 과감하게 파괴해버리기도 했다[7]. 이러한 소녀 만화의 칸 나누기는 내면묘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새로운 표현형식으로 확립되어 갔는데, 만화 표현론을 제창한 나츠메 후사노스케는 쇼조망가의 경우, 내면의 언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독백이나 회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말들이 때로는 길게 계속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사와 동시 진행되면서 내면과 외부세계의 엇갈림을 강조한다. 그런 이유로 화면에서는 다양한 시간에 속하는 말들이 중복되어 나오는데, 이러한 말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만화를 읽어내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이 소녀만화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본 만화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6]. 쇼조망가 특유의 '내면의 언어' 표현법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다용되기 시작하였고, 회상과 내면의 심정을 나타내는 문법으로서 시간의 축을 다르게 하는 칸의 내포와 중층, 하얀 빈칸의 사용 등으로 칸 구성의 장식화가 진행되었다. [그림 8]은 회상을 표현하는 중층 컷이 등장하는 만화의 예이며, [그림 9]는 [그림 8]의 만화에 표현된 다층적인 시간의 축을 마치 애니메이션의 셀처럼 3장의 시트로 나누고 있다.

그림 8. 회상을 표현하는 중층 컷
(『雨の降る日はそばにいて』 太刀狹孝子, 1977)

2) 3단 통합 스타일화는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만화페이지의 맨 위 단에서 아랫단까지 등장인물의 전신을 커다랗게 배치하는 표현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녀만화는 더욱 화려하고 세밀하게 인물을 묘사할 수 있게 됨.

그림 9. 애니메이션의 셀과 같이 겹쳐진 컷 구성
(別冊宝島EX 『マンガの読み方』 1995)

3)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쇼조망가의 장르적 특징이 정착되어 다양화된 시기였다. 심리묘사 장면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선이 가늘어졌으며, 칸 나누기는 보다 안정된 발전을 보였다. 또한, 여성을 독자로 하는 만화들은 각 장르의 특성과 스토리텔링에 맞춰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0]은 레디코믹 『TOMOI』의 칸 나누기의 예인데 주인공인 두 남자가 혼인행세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 작가는 화면의 전체를 결혼식을 올리는 소품들을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으로 깔고 결혼식

그림 10. 『TOMOI』 秋里和国, 1986~87

을 거행하는 두 남자의 작은 감정처리까지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독자가 두 남자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정면 컷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는 연출을 하고 있다.

4) 1990년대 이후

쇼조망가의 장르적 특징으로 개발된 세련된 수법들은 소년만화, 청년만화에도 보급되어 내면묘사 표현은 일본의 만화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쇼조망가는 그 화려함과 섬세함을 방사하거나 무언가를 플러스하거나 하면서 보다 다채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제작된 만화 예를 보면, 칸의 패선과 모양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같은 화면 안에서 시제를 나누거나 주인공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 줄로 된 패선 칸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으로 된 패선 칸은 과거의 회상으로 나눠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칸의 모양, 중복되는 방법, 패선의 사용 분리 등으로 등장인물들의 회화와 그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칸나누기를 자신들의 만화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칸 구성을 읽어내고 있다.

그림 11. 『花ぶんこゆれて』 太刀掛季子, 1997

III. 문화의 맥락에 따른 동서양의 소녀만화

1. 문화인류학으로의 접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미국과 일본은 소녀만화 장르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소녀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Girl's Comics와 달리 일본의 쇼조망가는 일본의 대표적 만화장르로서 황금기를 구가하며, 다양한 장르로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일본의 소녀만화의 어떠한 요소가 여성 독자들을 강하게 이끈 것일까?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T. 홀은 문화를 크게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 context culture)로 구분하였다. 맥락(context)이란, 비언어코드,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환경, 인간관계 등을 가리킨다. 고맥락 문화란, 민족적으로 동질을 이루며 역사, 습관, 문화 등에서 볼 때 공유하고 있는 콘텍스트, 즉 맥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확일성이 발달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깊은 인간관계로 묶여있으며 멤버 간에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 간단한 메시징과도 깊은 의미를 갖기 쉬운 문화로 언어보다 맥락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고맥락 문화의 대표국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인 중국, 한국, 일본이 그에 속한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란, 다른 인종,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콘텍스트의 비율이 낮아 개인주의와 다양성이 발달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언어표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을 갖는 저맥락 문화의 대표국가로는 다민족국가인 미국 등을 들 수 있다[5].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일본의 쇼조망가와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미국의 Girl's Comics를 비교해보면, 앞서 제시한 만화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상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첫째, 말풍선에 사용되는 대사의 양으로 시각적인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Girl's Comics에서는 수많은 말풍선이 사용되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쇼조망가는 말풍선보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대인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칸의 전개에 있어서는 순차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는 Girl's Comics와 달리 일본의 쇼조망가는 다양한 맥락에 따른 이해가 필요한 칸의 전개를 보이며, 시공간이 비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시간이 겹쳐져 진행되

는 내포와 중층의 연출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만화이론가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 역시 일본의 만화는 '도달하는 것보다 여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서양의 만화와 일본만화는 서술방식의 차이로 인해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3]. [그림 12]는 프랑스에서 일본망가를 소개하는 만화 잡지 『에클립스(Ekklipse)』의 기사이다. 프랑스의 독자들에게 일본 소녀만화의 복잡한 스토리텔링과 칸의 전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관계를 도식으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위한 만화에서 주로 선택하는 주제와 그 주제를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링은 남성을 위한 만화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여성을 위한 만화는 심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관계의 설정, 여성의 시각 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년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순차적인 칸 흐름과 단순한 칸나누기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 일본의 쇼조망가 작가들은 혁신적인 칸 변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칸나누기였다.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일본의 쇼조망가 작가들은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변형된 칸나누기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미국의 Girl's Comics 작가들은 남

그림 12. 『에클립스(Ekklipse)』 2001

성작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상황과 저맥락 문화의 특성상 큰 변혁을 이루는 과감한 칸나누기의 변화는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남성중심의 코믹 스타일로 여성의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여성 독자들이 일본 쇼조망가에 공감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IV. 결 론

일본의 쇼조망가와 미국의 Girl's Comics를 칸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르 성립을 고찰한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쇼조망가는 칸의 성립이 비순차적인 시간 흐름과 내면묘사를 담기 시작한 칸 나누기의 발전과 함께 장르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1950년 이후 뚜렷한 여성시장을 갖지 못하고 비주류 만화로 그 존재감이 매우 약한 만화장르였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만화의 영향으로 칸나누기를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의 미국 코믹스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망가 스타일이 채용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녀들을 위한 만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아니메와 일본망가를 보고 성장한 현대의 Girl's Comics 작가들은 일본 망가 스타일을 자신의 작품에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은 효과적인 표현 스타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Girl's Comics와는 여러 차이점을 갖는 일본 쇼조망가지만, 영어에 맞는 의성어의 대체, 상징적 기호들에 대한 학습, 이야기 관습에 대한 차이, 칸 수정을 통한 속도조절방식 등 서양의 문화적 수용성에 맞춘 일본 소녀만화의 표현양식의 적절한 도입은 앞으로 미국 Girl's Comics를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동서양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컷의 성립

	'40~ '50년대	'60~ '70년대	'80~ '90년대	'90년대 이후~
미 국	순차적흐름 균일컷배분	순차적흐름 균일컷배분	순차적흐름 회화적컷변형	망가영향 내면묘사
일 본	순차적흐름 균일컷배분	비순차적흐름 내면묘사	비순차적흐름 내면묘사	보다 발달된 내면묘사

참 고 문 헌

- [1]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살림, 2000.
- [2] 로저새빈, 만화의 역사, 글논그림발, 2002.
- [3]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08.
- [4] 프레드릭 L.쇼트, 이것이 일본만화다, 다섯수레, 1999.
- [5] Hall, Edward.T., *Beyond Culture*, New York, 1976.
- [6] 夏目房之介, マンガはなぜ面白いのか, NHKライブラリー, 2002.
- [7] 四方田犬彦, 漫画原論, ちくま學芸文庫, 1999.
- [8] 岡本芳枝, “少女マンガのコマ割りについて”, マンガ研究, Vol.1, pp.117~129, 2002.
- [9] 藤本由香里, “少女マンガの源流としての高橋眞琴”, マンガ研究, Vol.11, pp.64~91, 2007.
- [10] 大城房美, “手塚治虫と少女マンガのグローバル化”, マンガ研究, Vol.14, pp.72~80, 2008.

저 자 소 개

권 경 민(Kyung-Min Kwon)

정회원

- 2004년 3월 : 일본 學習院大學 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졸업 (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관심분야> : 코믹스, 애니메이션, 만화기호학, 문화